

정책토론회 I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

• 1996
• 8/27
• 화
• 인
• 2시
• KINOKUNIA 3층
•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297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 269~5763)

3.44
60대

00002974

00

정 책 토론회 I

매매출 알선, 그 실태와 진단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개발원 후원)

1996
8/27
화
오후 2시
한국여성민우회 310호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 269-5763)

01 18-5

정책토론회 I

매매춘 알선, 그 실태와 진단

□ 사 회 : 이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공동대표)

● 실태보고 / 변리나 (참누리 대표)

매매춘 실태 와 그 동기

● 주제발표 /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매매춘 원인분석과 대책

● 지정토론 I /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 지정토론 II / 나영희 (새정치국민회의 여성국장)

매매춘 체계에 대한 사회통제기제의 법적, 제도적 실태와 정책

● 1996
● 8/27
● 화
● 오후 2시
● 중앙회관 3층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 269~5763)

I 14 30 10 10 10

매일 5월 1일, 5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1998
8월 21일
9월 11일
10월 21일
11월 11일
12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길 123

(02-399-2103)

행사진행 및 차례

□ 사 회 : 이경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공동대표)

- 실태보고 / 변리나 (참누리 대표) 5
매매춘 실태 와 그 동기
- 주제발표 / 이영자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20
매매춘 원인분석과 대책
- 지정토론 I /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31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 지정토론 II / 나영희 (새정치국민회의 여성국장) 36
매매춘 체계에 대한 사회통제기제의 법적, 제도적 실태와 정책방안

매매춘 실태와 그 동기

변리나 (참누리 대표)

1. 매춘(賣春) 여성과 매매춘(買春) 남성

사회는 여성을 결혼이라는 제도속에 묶어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으로 나누어 각기 획일화된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은 다양한 모습과 문화를 갖고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매춘(賣春) 여성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흔히 매춘(賣春)여성을 남성위주로 획일화시켜 더러운 여자,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평가하고 있다.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성폭행 등의 상처로 타의에 의해 매춘여성이 되었거나 스스로 매춘지역을 찾아 자의로 매춘여성이 되었느냐의 구분이 있을 뿐이다. 전자의 매춘여성은 불쌍하다는 동정적인 평가를 받고 후자의 경우에는 돈과 쾌락을 찾아 매춘여성을 택했다고 보는 평가로 질 나쁜, 정숙하지 못한 나쁜 여성으로 평가를 한다. 현재 매매춘(賣買春) 문제를 매춘여성의 시각이 아닌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유입동기만으로 평가해 근본적인 매매춘 문제에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부매춘과 직장여성매춘은 자의(自意)에 의한 매춘으로 평가해 나쁜여성으로 묶어 매도하여 매매춘 문제에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매매(賣買)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춘(賣春)의 문제인 것 처럼 극대화시키고 있다

얼마전 매스컴에서는 보도사무실 등-직업소개소, 결혼상담소-을 통한 주부, 직장여성, 여학생 매춘 문제를 신종매춘이라며 매춘 문제가 예전-타의에 의한 매춘-과는 달리 즐기기 위한-자의에 의한 매춘-매춘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매춘의 심각성을 떠들어댔다. 그러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매매춘(무

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준)이 성업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무허가 매매준 소개소-보도 사무실, 결혼 소개소, 직업소개소-의 확산은 현 매매준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다.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준 형태는 과거 오래전부터 숙박업소와 룸싸롱, 나이트 클럽 등에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숙박업소의 매매준은 대부분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준의 형태이다.

무허가 소개소를 통한 매매준은 기존의 한 업소-업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억압이 따르는 매매준과 자유 의사로 독립적인 거리매매준의 중간형태를 띠고 있는데 특성상 독립적인 매매준보다 고정된 수익을 보장받으며 억압받지 않는 형태의 매매준이라는 점에서 대규모로 확산되리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기존 매매준지역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고, 현재 많이 확산되고 있는 무허가 사무소를 통한 매매준 알선 실태, 그리고 매춘여성으로의 유입동기를 살펴본다.

2. 기존 매매준 지역의 형태

90년말 허가된 유흥업소는 41만 5천개(보사부 통계 연보)에 달하고 있다. 미아리 텍사스 등 무허가 업소를 포함하여 매매준여성의 수를 추정한다면 약 120만-150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매춘여성의 생활형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숙소 생활을 하는 형태와 출퇴근 하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매춘여성이 숙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업주와의 채무관계와 잦은 지역 이동 때문이다. 업주(또는 소개소)와 채무관계가 있는 매춘여성은 상품적 가치에 의해 타 지역으로 매매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된 집을 갖지 못하고 업주가 마련해주는 숙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숙소 생활이 지방일수록 더 확대가 되는 것은 매(買)춘 남성이 적은 소도시에서 매(賣)춘 여성은 쉽게 상품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매춘여성 스스로 매(買)춘 남성이 많은 지역으로 잦은 이동을 하며 수입을 늘리는 매춘여성이 있긴 하지만 소수이다. 돈을 모으기 위하여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 또한 극히 드물다. 숙소 생활은 업주와의 끊임없는 관계속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채무관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출퇴근이 자유로운 생활형태의 매춘여성은 주로 한 지역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는 경우인데 업주에 의해 가끔 지방으로 매매(賣買)되어 일을 다니며 숙소생활을 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매춘여성은 매춘생활을 하면서 숙소생활과 자유로운 생활형태를 반복한다. 숙소생활을 한다는 것은 업주에 의해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여성들은 숙소생활을 거부한다.

1) 룸 싸롱/나이트 클럽

나이트 클럽의 경우 나이트 클럽 직영으로 매춘여성들을 고용하는 경우와 멤버(룸싸롱의 경우 웨이터나 큰 마담)에 의해 고용되는 경우가 있다.

멤버는 투자되는 것 없이 이권이 많기 때문에 이권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그 지역의 건달들이 한다. 멤버는 월급제로 마담을 고용하고 마담은 매춘여성들을 고용한다. 매춘여성들의 대부분은 빚이 있기 때문에 멤버는 사채업자를 마담과 연결시켜주어 매춘여성을 모으게 하는데 이자는 원금의 월 10%가 대부분이다.

나이트 클럽 매춘여성의 수입은 보통 월 200만원 정도이다. 지출을 살펴보면, 매춘 여성은 팁과 매매춘 수입의 10%를 멤버에게 주어야하고 한달에 한 번 멤버비로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멤버에게 준다. 그리고 숙소생활을 하는 경우 숙소비로 2-30만원을 준다. 마담의 경우 월급으로 멤버에게 1-200만원정도를 받는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나이트 클럽은 멤버가 없는 대신 마담이 멤버의 역할을 한다.

룸싸롱의 경우도 업소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와 마담이나 웨이터에 고용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부분에서 나이트 클럽의 운영방식과 비슷하다. -멤버비는 없다-

룸이라는 일정한 공간에 갖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매(買)춘 남성에 대한 많은 서비스를 해야하고, 육체적 괴로움을 당하며 많은 술을 마시는 등 나이트 클럽에 비해 힘이 들지만 매춘여성이 룸싸롱을 선택하는 이유는 룸싸롱에 오는 매(買)춘 남성이 대부분 돈이 많은 30대 이상의 남성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회에 따라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트 클럽은 클럽 손님이 지켜보는 공간에서 매(買)춘 남성에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매춘여성임이 노출되지만 룸싸롱의 경우 매춘여성과 매춘남성만의 관계이다 보니 비밀이 유지될 수있다.

2) 숙박업소/목욕업소

숙박업소로는 여관이 있고 목욕업소로는 터키베이스와 안마시술소가 있다.

여관이나 여인숙(이하 여관)의 매매춘은 여관에서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보다는 보도사무실을 통한 매매춘이 더 많다. 여관을 찾는 매춘남성은 여관비를 포함하여 매(買)춘 비용을 지불하는데 보통 5-7만원 정도이다. 매매춘 비용은 여관과 보도사무실, 매춘여성이 나누게 된다.

터키 베이스(안마시술소 포함)의 경우는 주로 업주와 고용된 관계속에 있다는 것 외에는 매매춘 비용과 분배법은 숙박업소와 비슷하다. 터키베이스 특성상 비밀이 유지 되므로 자신의 매매춘을 숨기고 싶은 매(買)춘 남성들이 주로 찾는다. 매춘여성의 경우 24시간 대기 상태에서 일을 해야하고 일의 특성상 힘이 들지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빛이 많은 매춘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매춘여성이 대부분이다.

3) 매매춘 밀집지역

매매춘 밀집지역은 전국적으로 매춘남성의 유동인구가 많은 역 근처에 대부분 있다.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와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숙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매매춘 밀집 지역은 많은 업소와 매춘여성이 대규모로 있는 특성상 연령 폭이 넓고 생활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매매춘의 종합 형태라고 말할수 있다.

매매춘 밀집 지역의 매매춘업소는 개별적인 매매춘 업소에 비해 단속을 피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불법영업-미성년자 매매춘, 여성성기를 이용한 쇼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업시간은 24시간 일을 하는 곳이 있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영업하는 업소가 있으며 매춘여성의 수입도 지역과 업소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기본월급이 책정된 상태에서, 한 매(買)춘 남성당 일정액을 받는 경우도 있고 기본 월급이 없는 경우도 있다.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만 의상비, 숙소비 등으로 많이 지출된다. 많은 매(買)춘 남성을 상대하는 것에 비하여 매(賣)춘 수입은 적은 편이다.

매(賣)춘여성 자발적으로 매매춘 밀집 지역을 선택하는 경우는 매(買)춘남성과 특별한 관계-대화, 서비스 등-없이 단지 매매춘을 한다는 것이고 타의적인 선택은 업주(소개소)에 의해 매매(賣買)된 경우와 인쇄 매체(생활정보지, 길가에 붙어있는 전단 등)에 의해 속아서 오는 경우이다(대부분 타의적인 선택이다). 인쇄 매체에 의해 유입되는 여성은 대부분 가출 여성인데 숙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성은 숙식이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매매춘보다 폭력이 잦아 존엄성 상실이 크며 매매춘 생활에 자포자기 상태로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 빛에 대한 이자율은 원금의 월 10% 정도가 가장 많으며 사채업자 대신 업주가 하는 경우가 많다.

4) 매매춘 지역의 폭력

모든 매매춘 형태에서 두드러진 폭력은 경제적 착취이다. 경제적 착취는 매춘여성의 빚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탈매춘을 어렵게 만든다. 매매춘업소에 대한 공무원들의 금품착취 또한 매춘여성의 착취로 이어진다.

많은 종류의 경제적 착취는 매춘여성의 빚을 늘리고 빚이 늘어난 매춘여성은 업주간의 매매(賣買)로 이어진다. 업주간에 여성이 매매를 당할 경우 갑자기 많은 빚이 늘어나는데 이유는 업주는 여러 이유로 빚을 늘려 타 업주에게 매춘여성을 매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일을 쉬게 하여 이자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

빚이 많은 여성은 다른 매춘여성들과 서로 '연대보증'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한 여성이 일이 힘들어 도망치게 되면 연대보증을 섰던 여성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도망을 쳤다가 잡히면, 업주가 찾는데 비용이 들었다며 하루 보통 10만원 이상의 빚을 늘린다(도망친 여성을 잡아 다른 업소에 매매하고도 연대보증을 섰던 여성에게 알리지 않고 빚을 씌우는 경우도 있다).

업주와 마담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은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시켜 탈 매춘을 두렵게 만든다.

경제적 폭력과 함께 매춘여성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매(買)춘 남성들의 폭력이다.

매춘남성은 매춘여성을 돈으로 샀다는 이유로 일정시간동안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매춘남성의 언어, 육체적 폭력과 매춘여성을 노예화시킨 비정상적인 성 체위는 매춘여성에게 심한 자멸감을 주어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매춘남성의 남근 외이물질 삽입은 매춘여성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다.

매매춘 지역에는 많은 종류의 폭력이 있다. 그러나 매춘여성의 대응은 별로 없다. 매춘여성이 직접적으로 폭력에 대응할 경우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매춘여성은 폭력에 순응한다.

3. 무허가 소개소에 의한 매매춘 확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허가 소개소에 의한 매매춘 알선행위는 과거에도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등 어린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보도사무소등이 확산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보도 사무실은 직업소개소와 함께 많은 매매춘 문제를 유발했다.

1) 직업소개소

직업소개소(이하 소개소)의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개소는 매춘여성을 업소(유흥접객업소, 다방 등)에 한달 기간으로 소개시켜주고 대가로 소개비(건당 3-40만원)를 업주에게 받는다. 소개소에 속한 여성은 대부분 매매춘 구조에 따른 빚에 얽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 지지 않은 채 많은 지역에 매매(賣買)를 당하며 소개소와 업주에 의해 많은 경제적, 육체적 착취를 당하게 된다. 소개소 여성은 한달을 계약으로 업소에 묶여 자유를 억압받게 되는데 만약 한달을 채우지 못할 경우 소개비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착취-소개비-를 하려는 소개소에 의해 매춘여성은 한달을 기준으로 자주 이동하게 된다.

소개소의 목적은 직업을 원하는 사람과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성의 직업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매매춘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업주들이 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매춘여성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빚이 많은 매춘여성의 경우 소개소가 보증해서 안전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개소는 미성년자를 업소에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소개소는 위조된 보건증이나 주민증을 만들어 취업을 시키게 된다.

소개소를 전전하다 빚이 많아진 여성은 산업형 매매춘 지역에 장기적으로 넘겨지기도 한다. 매매춘 소개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더 확산되어 있다(지방일수록 고용관계의 전통형 매매춘이 확대 되어있기 때문이다).

2) 보도사무실

보도사무실(이하 보도)은 유흥접객업소(이하 업소)에 매춘여성을 일정액의 소개비를 받고 한 남성의 파트너로 일회(소개소 한달 기준, 보도 하루 일회 기준) 소개시켜주는 일을 한다. 따라서 보도는 구태여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서 가정집이나 작은 개인 사무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무선 연락으로 통하기도 한다. 오래 전부터 주로 지방에서 숙박업소 등에서 많이 이용했지만 현재는 매매춘여성을 고용하기가 힘든 단란주점 등에서 보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소 규모 룸싸롱이 많은 주로 대도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서울을 생각한다면 강북 지역보다 단란주점 등이 많은 강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고, 강남 지역에서도 유흥업소가 발달된 송파구, 강남구에 더 많다).

보도는 많게는 30명 이상 매매춘여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성년자 등

업소에서 고용되어 일하는데 조건이 맞지 않는-미성년자와 외모로 인해 업주에게 고용되지 않는 여성, 직장여성 등의-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보도는 가출한 여성 등-숙식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원금 백만원에 20만원의 이자가 붙는 사채를 여성과 연결을 시켜주어 쉽게 월세방(일수방)을 얻도록 유도해 지속적인 매매춘을 강요하고 있다.

보도의 매춘여성 확보는 주로 보도에 속해 있는 여성이 친분이 있는 학교나 지역의 친구들을 보도에 연결시켜 주거나 벽보 등 인쇄 유인물로 확보한다.

규모가 큰 유흥접객업소는 자체적으로 여성을 고용(지정)하여 매춘여성을 통하여 단골 매춘(買春)남성 유치에 신경을 쓰지만 보도와 연대하는 업소는 대부분 크지 않은 소규모의 업소로 소수의 고용된 매춘여성과 보도여성을 함께 유치해 단골 매춘남성의 확보보다 일회성 매춘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

보도가 확대가 되는 이유는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업소의 입장

업소의 입장은 자체적으로 매춘여성을 고용하지만 여성의 수가 부족(매춘남성 10명이 업소를 왔을 때 7명의 매춘여성 뿐이라면 업소는 보도사무실을 이용하게되는 것이다)할 때 쉽게 단발적으로 여성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매춘여성 많이 있을 때 관리가 어려운 업소는 소수의 매춘여성만을 고용하고 필요에 따른 충당을 보도에서 하는 것이며, 보도를 통해 오는 매춘여성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점(매춘남성들이 좋아하는)은 업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매춘여성을 업주가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는 매춘여성이 지고 있는 빚을 책임져야 하는데 보도를 이용할 경우 업주는 부담감이 없을 뿐더러 소개소를 이용했을 때 필요한 소개비도 절약이 된다.

② 매춘여성의 입장

보도를 통한 여성은 업주에게 고용된 매춘여성에 비해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업소에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매상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업주에게 직접적인 억압을 받지 않고, 고용되어 있는 여성들에 비해 매춘남성에게 많은 서비스를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업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탈매춘이 가능하며 매춘여성이라는 스스로의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③ 보도사무실의 입장

보도 사무실은 매매춘 업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 단속에 걸릴 확률도 적고 투자 비용이 없어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보도사무실은 산업형 매매춘 지역이 아닌 단란 주점이나 작은 규모의 술집이 있는 유흥가에 많이 있다.

보도를 통한 매매춘 여성은 직업적으로 고용되는 기존의 매매춘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보도를 통해 매매춘을 경험한 여성은 점점 매매춘의 구조에 젖게 되고 타의적인 구조-탈매춘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이들을 장기적인 매매춘에 빠져들게 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도사무실의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한 특성에 기인한다. 미성년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와 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는 성병에 대한 노출, 그리고 보도가 기존의 소개소 운영방식으로 발전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다.

4. 매매춘 지역으로 유입 동기

매매춘 지역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매매춘여성들의 간접적 유입동기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대부분 매춘여성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매춘여성 공통적인 과거의 이야기이다.

① 대부분 아동기 성폭력(근친강간 등)을 당한 과거를 갖고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한 여성들이다.

순결 이데올로기가 팽배한 이 사회는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창녀로 만들어 놓고 결혼이란 제도를 위한 사회화로 강요하고 있다. 결혼시장에서의 상품적 가치-성폭력 당한 여성-를 상실한 여성은 매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그리고 성폭력은 여성에게 심한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어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모두 매춘여성이 되진 것은 아니지만 매춘을 선택할 가능성을 제공받는다.

② 아버지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어머니를 보며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한 여성들이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어머니를 보며 자란 여성은 어머니를 보며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여성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곧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③ 이중적인 성교육과 학교 교육을 받으며 여성의 존엄성을 상실한 여성들이다.

남성은 비공식적 성교육(저속한 포르노, 선배들의 과장된 성 체험담, 외설 잡지 등)을 받으며 성장한다. 비공식화된 성교육을 받아 폭력과 소유가 밀바탕이 된 남성의 성교육에 비해 여성은 공식화된 성교육을 받으며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요받게 된다. 남성에게는 정복심과 소유력을 강조하고, 여성에게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순결의 의무를 지게한 성교육은 여성의 성을 대상화시킨다. 대상화된 성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남성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고 그 위협은 현실로 다가와 여성은 존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④ 남성위주의 공적, 사적 교육/ 여성과 아동에게 불리한 법 구조 등 매춘여성으로의 간접 유입동기가 된다. 이러한 간접 유입동기를 제공받고 있는 여성은 직접적 유입동기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매매춘 지역에 아주 쉽게 유입된다.

매춘(買春) 남성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매춘(賣春) 여성은 매춘남성과 함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 사회는 매춘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를 매춘남성에게는 그다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춘(買春)남성이 기혼남성인지 직장남성인지 아니면 미성년자인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문제화하지 않고 있다.

매매춘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을 한다면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매매춘 문제는 가부장적 사회의 문제이며 남성의 문제이자 사회 전체적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신문 기사에 나타난 매매춘 사건

(1월1일 ~ 8월9일)

[한국여성민우회 조사]

날짜	신문	사 건 내 용	처 별	비 고
1. 8	한겨레 중앙일보	제주. 강모(29)회사원과 룸싸롱 종업원 김모(23)가 윤락행위. 업소 주인 황모(24)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방지법) 위반으로 불구 속 입건	
1.10		문경. 손님 김모(24), 안모(25) 윤락녀 김모(21)	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1.12	조선일보	제주. 안마시술소에서 윤락 및 음란 행위. 안마시술소 관리부장-심윤기(47). 국성이용원업주 윤태복(4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구속	
1.12	동아일보	용인. 윤락녀 이모(29), 손님 박모(26), 조모(26)	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1.13	중앙일보	미성년자고용 유흥업소 무더기 적발		
1.15	조선일보 중앙일보	17세 소년이 가까이 지내던 10대 가출소녀들을 30대 남성들에게 소개해 윤락행위 시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 속	
1.17	조선일보	광주. 여관동에 윤락여성 알선 보도 실장 이민재(36)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031 보도집
1.20	조선일보 중앙일보	부산. 퇴폐이발 윤락녀 송모(34), 업주 박모(43) 손님(27)	손님과 이발사이면서 윤 락한 여성에게 방지법 위반으로 입건, 업주는 수배	
1.26	조선일보	가출 소녀 유인 '아씨방'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연결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 장 신청	
1.29	중앙일보	러시아 여성 3명 윤락행위. 알선자 이수환 긴급구속, 성관계자 30대 2명 입건	방지법 위반. 러시아여 성은 강제출국, 이수환- 직업안정법위반.	
1.30	조선일보	안마시술소에 윤락녀 알선 윤기중(33)	방지법 위반으로 긴급구 속	
1.31	동아일보 조선일보	미성년자 고용 윤락업소 업주 무려가 직업소개소 -미성년자 등 부녀자를 유흥업소에 알선	방지법 위반 긴급구속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구속	

날짜	신 문	사 건 내 용	처 별	비 고
2. 1	중앙일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서울지역 3천 2백곳 적발	38명 방지법위반 구속, 582명 즉심회부, 1천36명 불구속, 2334개업소 영업정지 의뢰	
2. 1	조선일보	10대 가출소녀를 고용, 윤락행위 시킴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생 활 정보지 통 해
2. 1	중앙일보	불법퇴폐이발소 운영 김모(51)	풍속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2. 2	중앙일보	가출학생에게 피임약 먹여 초등학생 등에 윤락행위 강요	방지법으로 구속	
	조선일보	여고생 고용, 윤락행위 강요한 단란주점 주인	방지법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여고생과 함께 잔 남자회사원은 불구속으로 입건	
2. 2	조선일보	미성년자등 10대 접대부를 고용,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중 일부를 가로챈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주와 술집 주인	업주-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구속, 술집주인-방지법 위반	
2. 3	조선일보 경향신문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12살 국교생 윤락강요 ●자기집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리고 10대 12명을 고용-술시중, 화대 가로챈 ●10대 소녀들을 고용, 술시중을 들게 해 화대 2백여만원 가로챈	구속	
2. 4	중앙일보	이발소에서 윤락. 윤모(34), 박모(37) 구속영장 신청	윤락법 위반	
2. 4	조선일보	20대여성 사창가에 소개한 직업소개소 사무장 김(53), 주점주인 정모(33)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구속	
2. 8	중앙일보	미성년자 윤락행위 알선 부산 금실이 용원 제들수(41), 면도사 권모(40여)	알선자-풍속법 위반으로 구속. 윤락녀-불구속	
2.24	조선일보	부산, 호텔투숙객에게 윤락행위 알선 혐의로 코모도호텔 전객실 주임 김동춘, 알선업자 박영철	방지법 위반. 김동춘-1천5백만원, 박영철-징역 8월, 호텔-2천만원 벌금	
2.26	중앙일보	가출소녀 윤락가 매매 일당 3명구속	3명-구속, 3명-불구속	

날짜	신문	사 건 내 용	처 별	비 고
3. 5	한국일보	미성년자 율락알선 업주 2명	방지법 위반 긴급구속	
3. 6	중앙일보	부산 술집 주인 미성년자 고용, 율락 행위 알선	호송도중 농침	
3. 7	한국일보	10대 가출소녀 율락업소에 넘긴 40대 영장	방지법 위반 구속	
3.14	한국일보	돈 훔쳐 율락녀와 동침한 의경	절도 및 방지법위반으로 구속	
3.18	중앙일보	율락녀고용, 장소 제공혐의로 포주 이경희, 율락여성 이모 (인천 송의동 집촌-인천엘로하우스)	불구속입건	
3.23	중앙일보	손님(41) 방지법 위반, 알선자 이자연 23세	남-불구속 알선자-구속영장 신청	
3.23	중앙일보	여고생 율락행위 시킨 술집지배인, 손님 입건		
3.23	동아일보	여고생 고용 율락알선 20대 영장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상대방 불구속
3.23	한겨레 동아일보	미성년자 율락 벌금구형 깨고 실행선고		
3.24	조선일보	이택호(37) 미성년자 접대부로 고용	5백만원 벌금약식기소되었으나 징역10월 집유2년선고 -풍속법 위반	
3.24	한국일보	애인을 율락가에 팔아넘김, -이종만 22, 율락업주-최명구 38	부녀매매 및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한국일보	인신매매조직, '태민파'등 인신매매범 6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약취유인)위반 구속영장 신청	

날짜	신문	사 건 내 용	처 별	비고
4.15	조선일보 문화일보	10대 가출소녀 인신매매범 4명 구속	직업안정법 및 방지법으로 구속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출 미성년자 윤락행위 강요, 부부 영장	식품위생법 및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한국일보	가출 10대 소녀 2백여명 인신매매단 적발. 유령회사 차려서 구인광고로 유 인, 성폭행 후 전국 단란주점에 넘김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5. 2	중앙일보	직업소개소 차리고 알선자 조연식, 오길수 구속영장신청	알선자-구속영장신청	
5. 2	동아일보	주부 김복희(38)-인천 윤락행위	방지법위반으로 구속영 장 청구	생활비 마련
5. 2	한국일보 중앙일보	10대 및 여성가출 매년 급증 94-20458명, 95-24268명으로 19% 증가 96년 3월말까지 5808명 가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		
5.14	동아일보 조선일보	10대 가출소녀를 접대부로 고용, 윤락 행위 알선업주 구속	방지법 위반	
5.18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가출 여중생 고용, 강제 윤락행위시킨 주점업자 3명과 이들을 소개시켜준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방지법으로 구속	
5.22	중앙일보	미성년자 윤락행위 시킨 업주 구속	풍속법 위반으로 구속	
	문화일보	경찰청, 전국에 걸쳐 학교주변 유해환 경업소 1,218개 업소 적발		
5.31	조선일보	대구 김재복(47), 폭력단 김철호(300) 미성년자 고용, 윤락강요, 여관주인	방지법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관주인-공중위생법 위 반혐의	

날짜	신문	사 건 내 용	처 별	비 고
6.11	한국일보	미성년자 윤락알선 화대 갈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 구속	
6.14	조선일보	미성년자, 고용, 윤락행위 강요한 업주 영장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	
6.26	한국일보	퇴폐이발소 주인 적발	이발소 주인-긴급구속 손님, 여종업원-불구속	
6.27	한겨레	10대 가출소녀들을 여관에 합숙시키면서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뜯어냄. 이들을 소개 받아 윤락시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구속 풍속법으로 구속	
6.27	한국일보	가출 여중생 고용 술집주인 영장	아동복지법위반 구속	
7. 8	조선일보	부산, 업주 반영무(37)	방지법위반으로 긴급구속	
7.11	조선일보	10대 소녀를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 구속	아동복지법과 식품위생법으로 구속	
7.11	중앙일보 한국일보	10대 소년 윤락강요 술집주인 6명 구속, 무허가 단란주점운영으로 윤락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7.13	한국일보 동아일보	주부 강모(26) 윤락- 집늘리려고	불구속 입건	
7.17		윤락알선한 파트너 이벤트사 대표 김정숙(27)	방지법위반으로 구속	
7.23	한국일보 동아일보	주부 이모(36)-학원비, 서모(41)-무료해서, 윤락행위	구류 7일, 결혼상담소 알선업자는 구속, 상대자는 구류3일	
7.25	동아일보 한국일보	가출소녀 팔아넘긴 40대 등 2명 영장	상습영리약취 유인혐의 구속.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	
	동아일보	10대 소녀 유흥업소 접대부 소개 알선책 18명 구속	방지법-구속, 단란주점 대표 7명-풍속법위반,	
8. 7	동아일보	미성년 접대부 고용업주에 징역 8월 선고	풍속법 위반 징역8월	
8. 8	동아일보	윤락행위 알선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와 유흥업소 주인 등	방지법으로 소개업자-17명 구속. 1인-불구속 입건. 단란주점 업주 7명-풍속법위반으로 구속	
8. 9	동아일보	미성년자 고용 윤락시킨 업주 실행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 징역 10월	

1월~8월9일 매매춘 사건 유형별 정리

	사건	통 로	단속대상	법 적 근 거
1월	13	유흥업소2, 룸싸롱1, 안마시술소1, 이발소1, 소개(직업소개소,개인,유령회사,)등 8	미성년자5, 윤락녀7, 러시아 1	아동복지법1, 방지법9, 풍속법1, 직업안정법1, 기타2
2월	14	단란주점1, 이발소3, 호텔1, 소개(직업소개소,광고,개인)등7, 기타2	미성년자10 윤락녀3	방지법10, 직업안정법2, 풍속법2, 기타1
3월	11	술집 6, 집촌1 인신매매1. 일반3	미성년자7 윤락녀1	직업안정법1, 방지법3, 식품위생법1
4월	3	소개(구인광고)1 인신매매1, 일반 1	미성년자 3	직업안정법1, 방지법3, 식품위생법1
5월	6	유흥업소3, 직업소개소2 여관	미성년자4, 주부1, 일반1	방지법5, 폭력법1, 풍속법1, 공중위생법1
6월	5	유흥업소4, 이발소1	미성년자 4, 일반1	방지법1, 식품위생법1, 아동복지법1, 풍속법1, 특정범죄가중처벌1
7월	7	유흥업소3, 이벤트회사1	미성년자3, 주부2 일반2	아동복지법2, 방지법5, 식품위생법1, 상습영리1
8월	3	유흥업소2, 직업소개소1	미성년자1, 일반1	방지법2, 풍속법2, 아동복지법1
총계	62건	유흥업소 22건 직업소개소 등 20건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호텔등 9건 인신매매 2건 집촌 1건 기타 6건	미성년자 37명 윤락녀 11명 주부 3명 러시아 1명 기타 5명 (남성처벌)	방지법 45건 아동복지법 5건 직업안정법 4건 풍속법 7건 특정범죄 3건 식품위생법 2건 공중위생법 1건 상습행위 1건 폭력법 1건 기타 3건

사내경
시행규칙

상습행위
의정

가중처벌

매매춘의 원인 분석과 대책

이영자 (가톨릭대학 사회학과 교수)

1. 문제제기

매매춘은 말 그대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이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그것은 우선 성에 대한 개념의 문제이다. 즉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우선적으로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행위라고 할때 동물적인 성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사회의 성이 동물의 성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을 단순히 성본능의 표현이 아니라 성문화로 실천한다는 전제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성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양식을 문화로 규정짓는 인간사회의 기본전제에 해당된다. 더구나 인간의 성욕은 인간의 어느 욕구보다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성욕을 그냥 방치할 경우 현재의 사회질서는 결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인간의 성규제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는 결혼제도가 고안된 것이며 특히 현재 인류사회에서 가장 발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일처제는 인류역사의 문명의 단계를 열어준 기반이 된 것이다.

이와같이 동물적인 성을 금지, 규제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사회의 기본질서의 근간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춘이 그 오랜 역사동안 지속되어온 것은 바로 인간사회가 여전히 동물적인 성을 허용해 왔다는 모순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은 동물적인 성을 사회가 왜 허용해왔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둘째, 앞의 문제는 바로 동물적인 성을 남성에게 허용해온 결혼제도의 모순에 있다. 앵겔스가 지적한 대로 인류역사에서 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가 정립된 이후 이것

이 실제로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여성에게만 강요되었으며, 따라서 남성은 여전히 군혼시대에 살수 있도록 사회가 허용해온 것을 말한다.

즉 남성은 일부일처제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중적인 성윤리가 지배해온 것이다. 이렇게 볼때 매매춘제도와 가부장적 일부일처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을 위한 일부다처제, 축첩제도, 외도문화등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매매춘은 특히 남성의 성본능을 자유롭게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제도로써 발전되어온 것이다.

인류 역사속에서 종교매춘, 군사매춘, 상업매춘, 접대매춘등이 존재해왔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새로운 형태의 매매춘이 생겨난 것이다. 정신대는 바로 매매춘을 일본국가가 제국주의적 군사력강화를 위해 적극 이용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남성에게는 성을 사는 행위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허용해온 역사 자체가 또한 문제인 것이다.

이와같이 매매춘은 그 근본뿌리에서 가부장제적 일부일처제의 모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중적인 성윤리, 그리고 매매춘제도를 허용하고 발달시켜온 인류역사의 문제가 함께 내포된 것이라고 할때, 그 문제의 심각성과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헤아릴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근본문제들을 내포하는 매매춘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특히 제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현상적으로 볼때 매매춘의 종류가 나날이 다양화되면서 일상생활속으로 점점 더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매매춘공간의 확대이고 매매춘업의 무차별한 파급현상이다.

과거에 집촌이나 기지촌의 형태로 집중되었던 매매춘업이 이제는 특정한 장소의 구별없이 일반 주택가를 포함한 어느 장소에서나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각 지역의 '창녀촌'들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숙박업소, 이용업소, 유흥업소, 목욕탕, 주점, 요정, 러브호텔, 찻집, 역전, 공원, 가정집을 가장한 은밀한 장소들에서 매매춘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발을 하고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산책을 하는 일상생활의 현장과 그 연장선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매매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또 특별히 마음먹지 않더라도 매일의 일과속에서 원하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성을 사고 즐길 수가 있음을 말한다.

또한 매매춘업을 주업으로 내세우지 않고서 부업으로 하는 경우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매매춘을 주업으로 겨냥하면서 다른 영업으로 위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매매춘업의 규모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다. 게다가 매

매춘 중개업이 다양하게 늘어나서 직업소개소, 결혼상담소, 보도사무소등이 매매춘 알선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매매춘이 과거부터 존재했던 문제이지만, 특히 현재에 와서 이토록 번창하고 일상화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배경과 이유들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를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첫째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성문화가 매매춘을 어떻게 조장하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 자본주의사회에서 쾌락주의와 성산업의 발달이 매매춘을 확산시켜온 배경과 특히 한국에서 매매춘업을 비대화하게 만든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2. 매춘(買春)을 조장하는 성문화

성을 사는 매춘이 남성에게는 '필요악'인것 처럼 정당화해온 것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남성의 성욕이 강하다는 신화, 남성의 성욕의 자유로운 표출을 남성다움의 과시로 보는 남성문화, 남성의 성은 여성의 성을 소유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생각해온 성관념, 그리고 성을 사는 행위를 남성의 특권으로 인정해온 관습등을 말한다.

우선 남성의 성욕이 강하다는 신화는 생물학적인 근거의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남성으로 하여금 성욕을 강하게 표출하도록 허용하고 또 부추겨온 사회문화적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게 정절과 순결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불감증을 유도해온 이면의 정반대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설사 남성의 성욕이 강하다고 하더라도(근래에 와서는 오히려 여성의 성욕이 더 강하다는 학설이 대두되기도 한다), 앞에서 말한대로 성을 성본능이 아닌 성문화의 차원에서 볼때 오히려 남성의 성욕을 보다 강하게 규제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성충동을 규제할 수 없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이 때문에 매매춘제도를 근절할 수 없다고 보는 '필요악'설은 단지 남성의 성적 특권을 합리화하는 방편이며 그러한 특권을 옹호해온 남성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남성의 성욕을 남성다움과 일치시키는 남성문화가 뿌리깊다. 즉 남성은 성욕이 강하고 성생활을 잘 해야만 남성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남성다운 남성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남성의 자유로운 성생활이 마치 남성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는 방편인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성을 사는 행위가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불러 일으키기는 커녕 오히려 능력있는 남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한 것이다. 이는 또 한편 남성으로 하여금 성욕이 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매춘을 즐길 줄 아는 습성을 갖도록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매춘은 사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남성문화의 단골메뉴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한편 남성에게 매춘이 남성다운 성행위인 것처럼 인지되는 것은 남녀간의 성관계가 남성의 강제와 지배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짐을 당연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성관계를 쌍방의 합의된 상호교감의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상대가 되는 여성을 한낱 성욕해소의 도구로 보는 것이며 매춘은 바로 그 극치의 현상이다. 그리고 여성의 정서와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남성의 이기적인 성충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문화가 지배해온 것이다. 지금도 남자대학생이 '성인식'의 이름으로 매춘여성과 첫번 성경험을 갖는 것이 마치 전통적인 남성문화로 실천되는 것은 바로 상대와의 아무런 교감이 없이 일방적인 성욕의 해소를 남성적인 성생활의 표본으로 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뿌리깊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이러한 강제적 성관계가 습관화되는 문화는 성폭력을 유발하는 온상이 되는 것이다. 성폭력은 바로 강제적인 성을 강요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매춘행위가 돈을 매개로 성을 강제하는 것이라면 성폭력은 폭력을 매개로 성을 강제하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의 본질은 다 같이 강제에 있는 것이다. 또한 매춘여성을 상대로 하는 일방적인 성욕해소의 성관계는 아내나 애인을 상대로 하는 성관계에서도 그대로 연장될 수 있다. 그것은 다 같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으로 취급함을 말한다. 결국 매춘이 통용되고 조장되는 사회의 성문화는 우선적으로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켜주는 성관계를 기본모델로 하는 성문화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성폭력을 조장하는 성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쾌락주의와 성산업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의 생산력증대를 위해 본능을 과잉억압하는 금욕주의를 요구한 반면에 억압된 감성과 본능에 호소하여 쾌락을 추구하고 특히 성의 쾌락을 동원하는 전략적 방법들을 발전시켰다. 노동의 영역에서 최대의 합리성이 발달했다면 사생활에서는 자유연애가 점점 늘어나고 매춘업이 번창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말부터 20세기에 이르러 성의 자유와 해방을 부추기는 성혁명의 계기들이 전개되면서 성쾌락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성도덕을 공격하는 성

과학의 발전도 이것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 또한 소비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절제와 검약의 자본주의 정신을 '소비의 미덕'으로 대치시키면서 쾌락주의를 적극 장려하게 된다. 성해방은 바로 이것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노동과 생산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에로티즘이 소비와 여가를 통해 노동의 영역에서 축적되는 스트레스, 소외감,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아울러 오락, 유흥, 향락을 위한 다기능적 소비상품을 만들어내는 방편으로 예찬되면서 산업경제와 상업문화에 적극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성이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소재나 매개적 도구로 이용될뿐 아니라, 쾌락을 가져다주는 소비상품으로 적극 개발되는 다양한 성산업이 번창하게 된 것이다. 성산업은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날로 번창하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매매춘의 종류와 규모도 날로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쾌락주의와 성산업의 발달은 우선 여성의 성을 본능적 쾌락의 도구로 상품화하는 현상을 자극 확대시키고 아울러 여성의 성과 육체의 교환가치를 높이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제 여성에게서 성은 노동력보다도 더 쉽게 상품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생존전략의 자원이 된 것이다. 이는 한 마디로 여성의 성매매가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의 소비사회가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성을 사는 매춘(賣春)의 개념이 전통적인 것에 비해 무한하게 확대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의 매춘은 한 남성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형태만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어떤 종류든 간에 하나의 상품으로 파는 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여성이 성을 파는 직업을 일단 매춘이라 할 때, 또한 여성의 성적 서비스나 성적 매력을 노동력의 일부분으로 파는 것을 매춘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매춘의 종류는 모든 성산업의 종류만큼이나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성산업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온 가부장적 전통을 적극적으로 산업화함으로써 지지강화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을 파는 일을 노동을 파는 다른 직업들과 같은 차원의 생존방식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산업이 늘어날수록 여성의 성을 파는 신종 매춘은 증가할 것이고 여성직업에서 매춘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성쾌락주의와 성산업은 상호상승작용을 통해 성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끊임없이 늘려가면서 여성의 성을 상품가치화하는 성문화를 파급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래로 각종 성산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사우나 백화점, 호화 룸살롱, 퇴폐이발소, 안마시술소, 아파트단지나 농어촌지역의 유흥

업소등이 늘어나는 문제들이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고급콜걸, 호스티스, 집촌창녀이 외에도 각종 위장매춘이나 매춘 아르바이트들이 번창하는 현상의 문제가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지적한 자본주의경제와 문명의 특성과 함께 한국적인 특수상황에서 야기된 것이다.

즉 한국의 향락산업의 비대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산물이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선 한국에서는 후진국형 서비스업의 중대가 주로 향락산업의 기형적인 팽창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의 파행적 구조의 문제를 내포한 것이다. 한 마디로 대기업편중의 경제성장이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미약하게 만들고 중소기업형의 자본이 소비성 서비스산업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부동산투기등으로 형성된 유흥자금이나 각종 불로소득이 향락산업에의 투자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향락산업은 2차 산업에의 투자에 비해 높은 이윤이 보장되고 자금회전이 빠르며 세무행정이 허술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형 자본 투자의 선호대상이 되기 쉽다.

둘째로 한국 특유의 접대경제가 향락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출지향적 경제성장과 정경유착, 음성적이고 각종 비합법적인 거래등이 접대경제를 활성화시켜왔으며 특히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술과 여자의 향유가 중요한 몫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80년대에 한국 기업의 접대비 지출규모는 외국에 비해 1백배 정도가 큰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셋째로 향락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킨 또 다른 요인은 70년대부터 국가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증진시켜온 이래로, 고급호텔, 관광요정, 고급향락시설이 증가하게 되고 성향락사업이 국제관광의 필수적인 항목으로 정착된 것에 있다. 한국을 또 다시 '성의 식민지'로 만드는 일본인의 단체관광이 급증하면서, 여행사의 노골적인 매춘업 알선경쟁이나 지하연락망을 통한 관광매춘업이 번창하게 되었고 기생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의 규모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넷째로 장기간의 독재정치와 군사문화는 대중을 정치참여에서 배제시키는 비정치화과정에서 성향락풍조를 더욱 조장시켰고 또한 부정부패가 뿌리가 깊어지는 상황이 향락산업의 번창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정치적인 억압과 사회적 불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술과 여자를 찾는 빈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한국의 성산업은 오늘날에 이르러 더 이상 규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을뿐 아니라 새로운 성산업이 나 신

종 매매춘이 쉬지 않고 늘어나는 실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신매매, 폭력 배조직, 각종 성범죄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파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청소년의 탈선이나 왜곡된 성향락문화를 조장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을 파는 직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한편 이러한 직업에 대한 거부감없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몸을 파는 여성들의 부류가 연령, 직업, 동기에 있어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10대의 중고여학생에서부터 직장여성, 주부등에까지 다양하며 그 동기에서도 인신매매나 사기, 강압에 의해 본의아니게 매춘에 빠지는 경우, 기분전환, 심심풀이, 재미를 위해서 또는 용돈이나 가계소득을 늘리기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매춘을 하는 경우, 또는 보다 큰 돈벌이를 위해 유리한 직업으로 매매춘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큰 다양성을 보이는 것이다. 한 마디로 성을 노동과 같은 직업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말한다.

이와같은 풍조가 확산되는 원인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향락업소와 매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매춘여성의 공급을 필요로 할 것이고 따라서 갖가지 유혹적, 강압적인 방법으로 여성인력을 끌어들이는 방법들이 고안된다는 것에 첫째 원인이 있다.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된 매춘 중개업소들은 매우 다양한 유인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특히 업주와의 구속적인 관계를 벗어난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의 매춘을 보장하거나 아르바이트형식의 매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유혹적인 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수요가 있고 또 돈벌이가 되는 만큼 인신매매나 폭력적인 방법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매춘여성을 공급해주는 범죄들이 지속될 것이고, 그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이 계속 생겨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동기의 자의적인 매춘여성들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은 매우 복잡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돈벌이에 대한 욕구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한편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적 방편이 취약한 여성들에게 매춘이 비교적 수월한 돈벌이로서 유인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여성차별적인 취업구조, 여성인력에게 부과되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와도 직접적, 간접적 관련성이 있다. 한 마디로 여성의 경우 성의 상품가치가 노동의 상품가치보다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이 문제인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되어온 소비지향주의나 한탕주의 역시 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쉽고 수입이 좋은 돈벌이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매춘을 통한 돈벌이가 더 이

상 호구지책이 아니라 여성직업의 하나로 선택할 만큼 여성의 성관념이 점차 바뀌어 간다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여년동안에 성개방과 성향락문화가 한국에서 과급되면서 일부 여성들도 이러한 성풍조에 동화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일부 10대 여학생의 경우 정상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성쾌락주의나 외설적이고 퇴폐적인 성향락을 조장하는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왜곡된 성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남학생들에게서 성일탈이나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바로 이러한 여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또한 주부매춘의 경우 여성의 성문란을 특히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성들, 그리고 그 수요자가 되는 남성들에게 다 같이 내면화된 왜곡된 성관념을 함께 문제시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주부의 아르바이트 매춘은 그 수요자층인 남성들의 취향이 더욱 다양해진 것과 맞물려 공급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러한 수요의 증가가 이제는 가정에까지 침투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다 심각한 의미를 부여해야 할 일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오랜 역사동안 남편의 매춘을 허용해온 것이 마침내 그들의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매춘으로 발전되었고 결국에는 그들의 아내들까지도 몸을 파는 일에 끌어들이게 될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주부의 성타락만을 개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남성매춘의 심각성을 또 다시 방치하는 것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주부의 매춘은 매매춘제도가 바로 결혼제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전망과 대책

매매춘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우선은 자본주의적인 세계적 추세로서 특히 아시아에서 매춘업이 나날이 새로운 형태로 변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점점 더 자발적인 매춘여성으로 변모되어간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한다.

우선 일본의 경우 소녀매춘이 점점 더 버젓이 성행하여 '섹스도 즐기고 용돈도 번다'는 식의 유흥적 매춘이 '원조교제'라는 신풍속으로 자리잡아간다고 한다. 이 신풍속을 즐기는 한 여학생의 수첩에는 '용돈을 주는 아저씨', '옷을 사주는 남자', '맛있는 것을 사주는 아저씨' 등으로 분류된 단골손님의 명단이 적혀 있다고 한다. 이들은 텔레폰 클럽을 이용하거나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얼굴사진, 자기소개,

그리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드립니다' 또는 '돈많은 연인모집중' 등이 적힌 메모들을 변화가의 오락실 메모판에 붙여놓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직접 손님을 찾아나선다고 한다. 이는 매춘 알선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계약 방식이므로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에서 어린이 매춘업이 성행한다는 사실도 주목되고 있다. 인터폴(국제 형사경찰기구) 전문가들은 현재 아시아에 1백만명이 넘는 어린이 매춘부들이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한 섹스산업이 10억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호황을 누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이러한 매매춘시장은 폭력배, 범죄, 돈세탁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변태성욕자들이 범망을 피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전자우편함으로 '안전한 주소'를 교환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한 외국으로 섹스관광을 떠나는 독일인은 해마다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중에는 5천명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섹스관광자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때문에 어린 소녀(특히 14세이하)를 찾는 경향이 더욱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이와같이 자본주의 성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형태로 변창할 것이며 결국에는 착취대상을 어린이에게까지 점점 더 확대시킬 전망에 있는 것이다.

이는 미래사회의 주역들을 아예 어린시절부터 성산업의 노예로 타락시키는 가공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인간성의 파괴까지도 불사할 정도의 성역없는 상업주의의 극대화현상은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만연되는 성패락주의의 변태적 현상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 매매춘업을 더욱 더 변창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는 매매춘의 문제는 세계적인 추세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그간에 누적되어온 한국 특유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들과 성문화, 그리고 성산업의 변창에 대한 규제, 예방, 대응장치들이 너무나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전망은 밝지 않다.

1996년 1월 6일부터 개정 윤락행위방지법이 발효된 이후에 쌍벌규정에 따른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으나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매매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그 요점만 집약해보기로 한다.

① 개정 윤락방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그간의 지적들처럼 매춘행위에 대한 단속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쌍벌규정을 실제로 엄정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매춘남성의 처벌이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지닐 뿐 실제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입장이 이미 공공연하게 제시되어온 상황속에서 앞으로 과연 쌍벌규정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매춘남성보다 매춘여성의 처벌에 치중하는 차별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경찰, 검찰등의 확고한 의지와 입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쌍벌규정의 적용은 우선적으로 남성수요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처벌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개정 윤락행위방지법의 발효에 따라 매매춘업이 지금보다 더 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하여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종전까지 음성적인 위장매매춘이 계속 증가해 온 것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행정적 관리와 통제가 미약했던 때문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더욱 더 요구되는 상황에 있다. 개정 윤락행위방지법의 실시이후 이미 공개적인 장소를 피하여 변태영업소(안마시술소, 여관, 룸살롱등)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대형업소는 줄어드는 대신에 기지촌 주변의 가정집으로 매매춘업이 옮겨가면서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야기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다.

③ 최근에 특히 문제로 부각된 매매춘 알선업체들의 증가에 대해서도 그 규제와 단속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각종 직업소개업소나 공공연하게 매매춘을 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소들, 특히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하는 알선업체, 그리고 러시아인등 외국여성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조직에 대한 철저한 통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④ 가출소녀들이나 탈선청소년들의 매매춘행위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세미만의 가출 청소년은 지난 3년간 매해 13.3-18.4%씩 증가하여 96년 3월말 현재 3천5백59명에 이른다고 한다. 매춘은 가출소녀들이 생활기반을 당장에 마련할 수 있는 방편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을 상대로 하는 매매춘업이 조직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⑤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듯이 매춘여성들의 인권및 건강보호와 재활,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것에 필요한 제반시설과 재정,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립등이 국가정책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춘여성의 주변의 기생, 착취집단과 폭력행사집단을 처벌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매춘여성의 자녀들의 건강보호, 정상적인 양육환경과 교육제공등과 관련하여서도 일련의 대책들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⑥ 또 다른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매매춘을 조장해온 성관념, 성윤리등 성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조성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성교육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세대에서부터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매춘문화를 남성문화로 묵인하고 실천해온 성관습과 그릇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성본능이 아닌 인간적인 성문화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성교육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말한다.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전제

- 1) 매매춘 문제는 개별 문제(private troubles)라기 보다 공공 문제(public issues)이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매매춘 문제는 한 여성의 문제라기 보다 남성과 결부된 성차별적 요소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은 궁극적으로 가부장적 성차별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3) 매매춘 문제는 비인간적인 화폐에 의한 이윤 속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자본의 이윤 창출 과정에 대한 이해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4) 매춘여성을 보는 사회의 '희생자 비난(blaming the victims)'의 시각을 없애고 이들의 인권을 고려하는 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 5) 인간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신념하에 사회적 희생자인 매춘여성들의 사회복귀(재활)를 도와주는 다양한 장치를 사회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6) 매매춘 문제도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사회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한다.

2.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1) 예방 활동

- ① 가족정책의 강화 : 가정을 중시하는 가족복지사업을 활성화한다
- ②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조세정책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고양시키며, 엄정한 소득재분배 구조를 확립시킴으로써 향락산업에 의한

이윤 창출구조를 대폭 줄인다.

- ③ 사회윤리의 확립 : 사회지도층부터 사회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가부장적 구조에 따른 성차별의식을 불식시키며, 건전한 성윤리 확립,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간다
- ④ 사회통제의 강화 :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입법화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사회통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학교나 청소년 이용시설 주변의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 퇴폐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과 비행조장행위의 철저한 금지, 청소년에 대한 주류, 연초, 도색서적 판매 금지, 매매춘 업소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청소년 출입금지 등.

2) 매매춘 연결고리와의 접촉방지 활동

- ①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과 결연사업이나 후원사업을 실시하여 어려운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줌으로써 매매춘 연결고리와의 접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② 인신매매의 사례, 구인광고의 허구성, 직업소개소의 변칙적 영업, 잘못된 주변의 유혹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홍보함으로써 매매춘 과정에 빠져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3) 매매춘 알선기관에 대한 대책

공식적 기구인 결혼상담소, 직업소개소, 보도사무소의 매매춘 알선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고유업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자격을 가진 자가 운영하도록 기존의 법을 강화해나간다.

외국에서는 이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훈련, 전문적 훈련, 인격적 자질 등을 소유할 것을 제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① 학문적 훈련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전문적 훈련 ; 적어도 2-3년간 전문기관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인가된 전문가의 수퍼비전 밑에서 상담, 직업소개 및 보도 등에 관한 임상실습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문제진단기술, 심층심리적 문제의 파악기술, 인간의 성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술, 인간관계기술, 직업소개 및 보도기술 등을 습득해야 한다.

③ 인격적 자질 ; 전문가의 윤리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성숙한 감정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인간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표출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치유 활동

공동체 생활, 쉼터, 의료 등을 통한 치유 활동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매춘여성들의 낮은 의료보험 사용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매춘여성 대다수는 의료적 욕구와 필요성이 누구보다도 높은 계층이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여러가지 이유로 의료보험 이용을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의료보험이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사회복귀 활동

기술위탁교육, 취업알선, 장학사업, 수입사업, 놀이방, 공부방 등을 통한 사회복귀 활동을 들 수 있다.

정부가 매춘여성들의 자립갱생과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직업보도시설은 현재 인천소재의 협성원 정도밖에 없다. 그나마 매춘여성 거의 대다수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낙후된 교육내용을 통해 매춘여성들을 개방적이고 선진기술 지향적인 현실 사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매춘여성에 대한 인권경시의 관료제적 발상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매매춘여성에 대한 주요한 사회복귀 활동으로 일시보호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보호내용과 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보통 3일 정도만 제공하는 '위기보호 서비스'와, 15일-2개월 정도까지 실시되는 '단기 일시보호 서비스'와 6개월 정도까지 보호하는 '중기 일시보호 서비스',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장기 일시보호 서비스'로서 중간의 집 프로그램이 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자립갱생과 같은 생애전환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은 매춘여성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자원을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① 고용의 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보도 및 알선 ② 고등교육의 기회제공 ③ 가정관리 기술 ④ 성병, 임신, 약물중독, AIDS 등을 포함한 개인 보건교육 ⑤ 부모역할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① 위기보호인 경우 일시보호 프로그램에서 숙식, 의복, 의료적인 처치 등의 제공은 기본적인데 그 이외에 피보호자들이 처한 급박한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향후의 생활 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② 단기보호인 경우 보통 구조화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한다. 약물을 사용하는지, 자살의 가능성이 있는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 등 피보호자의 현재 상태를 전문적으로 사정, 진단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중기보호는 피보호자에 대해 상담을 강화하고 독립생활 능력을 제고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본적으로 생애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④ 장기보호는 사례에 따라 보호여성의 생애전환 동기가 강하고 프로그램에 적응을 잘할 경우 중간의 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던 여성들이 이와같은 일정한 규율과 목표와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 직업에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중도포기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융통성을 두어 자의에 따라 잠시 퇴소하였다가 다시 재입소가 가능하도록 가퇴소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다만 중단기간 동안에도 계속 상담원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계속보호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6) 인권 활동

매춘여성을 위한 법률상담, 범죄신고, 가혹행위신고, 부당착취신고 등을 통한 인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7) 연구 활동

매매춘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그 원인과 정책적 문제점의 파악,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활동을 다학문적으로 꾸준히 전개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매매춘 행위는 실정법상 불법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통합을 통한 재활적 차원에서 매춘여성들이 겪는 여러가지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매춘의

- 35 -

매매춘 체계에 대한 사회통제 기제의 법적, 제도적 실태와 정책방안

나영희 (새정치국민회의 여성국장)

I. 서론

매매춘과 관련된 사회체계의 중심에는 성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성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위치하고 있고 이들 성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매매관계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조장, 강화시키는 중간촉매자체계가 위치하고 있다. 중간촉매자 체계로는 매춘을 알선해주는 경로로 흔히 통칭되며 무허가 직업보도시설, 유흥향락업소, 공중위생법상 문제의 소지를 안고있는 터키탕, 무허가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사우나탕이 대표적인 촉매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이들 중간촉매체계는 성의 매매관계를 강화시키는 중요수단으로 구매자보다는 판매자인 매춘여성의 성의 판매에 크게 관여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들 성의 매매관계에 대해 우리사회는 금지주의의 원칙하에 주로 매춘여성에 대한 강한 통제정책을 실시하여 왔는데 매매춘을 통제하는 사회기제로는 윤락행위 등 관련법, 직업보도시설, 선도보호체계의 주종을 이루는 경(검)찰과 부녀상담소 등이 있다.

매매춘 체계가 지속적이면서 음성적으로 조직화되고 강화되는 매매춘 환경의 요소로는 가부장적 의식에 기반한 이중적 성윤리, 순결이데올로기, 향락퇴폐문화, 물질만능주의의 문화, 의식체계와 더불어 이러한 체계를 조장하는 산업구조체계, 역진적인 조세정책, 노동시장내의 성차별, 향락산업의 이상비대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매매춘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매매춘환경을 변화시켜내고 다양한 매매춘 관련 사회체계를 동시에 변화시켜내는 방법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매매춘체제와 관련된 사회통제기제를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II. 매매춘체제 관련 업종별, 행위별 실태와 근거법령

현재 퇴폐, 윤락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령은 형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미성년자 보호법, 사설강습소 등에 관한 법, 의료법, 관광사업법등 13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매매춘과 관련된 중간촉매 체제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별, 행위별 규제법령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① 대중음식점영업(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허가사항)에서 본 주제와 관련 문제되는 행위는 인삼찜집 등 주거지역에서 허가받아 유흥음식점화 하거나 밀설설치, 접대부를 고용하여 퇴폐, 매매춘행위자행을 하는 행위등이다.
- ② 유흥음식점영업(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에서 일반유흥음식점(극장식당, 바아, 비어홀, 룸싸롱, 단란주점), 무도유흥음식점(카바레, 나이트클럽등)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 등에서의 문제행위는 주택가나 학원가에 침투하여 칸막이, 밀설설치등으로 음란, 퇴폐영업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 ③ 숙박업등(공중위생법 제4조, 허가사항)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고용원의 매매춘 행위, 매매춘 알선, 미성년자 혼숙 묵인, 음란비디오 상영등이다.
- ④ 목욕장업(공중위생법 제4조, 최근 신고사항으로 개정)에서 문제행위는 특히 특수목욕장업(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등의 변태안마, 음란행위등이다.
- ⑤ 유기장업(공중위생법 제4조, 허가사항)에서의 문제행위는 매매춘행위, 미성년자 고용등이다.
- ⑥ 이·미용업(공중위생법 제4조) 등에서의 문제행위는 무자격자 고용, 여자안마사의 과다 안마 및 퇴폐행위, 칸막이 설치등이다.
- ⑦ 안마시술소(의료법 제61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의 문제행위는 변태안마, 매음, 음란비디오 상영 등이다.
- ⑧ 윤락업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 ⑨ 기타 관광산업, 비밀 무용강습소등에서의 매매춘 알선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행위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직업보도시설과 직업소개소, 결혼상담소, 단란주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신종의 아르바이트적(?) 매매춘 알선행위는 현행 매매춘 체계를 둘러싼 사회통제기제의 허술성을 드러낸 단적인 측면이라 볼수 있겠다.

III. 매매춘 알선행위를 둘러싼 사회통제기제의 문제점

매매춘 알선행위를 둘러싼 사회통제기제의 허술성 내지 사후약방문식의 처벌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건만 그 허술성이 어느정도 미필적 고의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소위 중간촉매 체계라고 불리워지는 매매춘알선 체계에 대한 그간의 행정처분 실태 및 사회통제기제의 문제점, 최근 터키탕 신고제 전환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매매춘 알선 경로 단속의 실태

'93년도 여성개발원에서 4,653명의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태보고서중 윤락여성의 유입시기와 유입과정은 매매춘알선경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락여성중 반수가 넘는 54.4%가 만 20세-24세 사이에, 13.5%가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 시절에 이미 윤락행위를 시작했으며, 특히 윤락행위가 표면화되지 않은 산창(散娼) 형태로(이른바 술집,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여관, 티켓다방, 전화발이, 관광업소등) 윤락행위를 한 여성은 12.6%에 달하였고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이들 산창으로부터 집창(集娼)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산창형태의 매매춘행위 단속상황은 94년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밝혀지고 있다.

1) 무허가 직업보도시설의 단속현황

본 토론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던 미성년자, 직장여성, 일부 주부 등의 신종 아르바이트적 매매춘행위 등의 알선경로를 본다면 무허가 직업소개소, 결혼상담소등이 알선의 주요본거지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앞서 지적한 바대로 매매춘여성의 유입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직업소개소와 관련, 95년도 노동부 백서에 의하면 민간에서 하는 직업소개 사업은 수수료, 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무료직업소개 사업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94년말 기준으로 1,274개소가 활

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 백서에 의하면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로 118건을 적발, 단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건수의 구체적인 적발행위가 무엇인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일련의 보도로 미루어보아 많은 수가 매매춘 알선 행위혐의로 추측되어진다.

이역시 공식통계에 잡혀진 숫자인만큼 단속을 피한 무허가 직업보도소의 매매춘알선건수는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

2) 위생접객업소의 준수사항 위반 실태

매매춘행위의 또 다른 알선경로로 인식되고 있는 위생접객업소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등의 준수사항 위반 실태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의 준수사항 위반은 업소별 위생사항 외에 윤락, 음란행위 등 미풍을 해치는 행위금지를 어겼을 경우이다.

95년도 보건복지부 백서에 의하면 94년말 현재

- 숙박업의 30, 605개소중 준수사항 위반건수 4,385건
- 목욕장업 9,116개소중 1,295건
- 이·미용업의 98,936개소중 5,134건

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 준수사항 위반건수에는 많은 수가 윤락, 음란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위반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경고 내지 고발 등이며 구체적으로 윤락, 음란행위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내용과 건수, 고발건수 등은 파악이 어렵게 되어있다. 이 역시 공식통계에 잡혀진 숫자인 만큼, 일부 경찰과 위생접객업소간의 먹이사슬관계를 고려해 볼때 행정처분뒤에 가려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유흥음식점등에서의 위반실태

시간상의 제약으로 최근의 자료추적이 거의 어려웠다. 다만 90년도 서울 YMCA에서 발간한 향락문화추방운동 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업소와 관련된 퇴폐, 향락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준수사항위반 제재는 업소내에서 풍기문란행위, 미성년자 출입, 음란매체물 상영시 영업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무허가 업소에 대한 처벌은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해 업주가 시간 외의 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적발되어도 과징금만

물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때의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액이 총 매출액에 비해 너무나 낮은 수준이고 업주들이 행정처분을 영업정지와 과징금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변태, 퇴폐영업을 해도 소정의 과징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상례화되고 있다고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벌칙이 무허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갈시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천5백만원이하의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지만 최고형이나 최고 벌과금이 부과된 적이 거의 없는 등 처벌형량의 미약성이 무허가 영업소의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유흥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접대부나 남자 접대부가 명백한 윤락행위로 걸리지 않는한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가 극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는 미성년자 손님을 출입시키지 못하도록 되어있을 뿐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했을 경우 단속할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18세 미만자를 정식으로 고용하여 술자리에서 접대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고정급료가 아닌 봉사료(팁, 화대)를 받는 조건으로 취업한 접대부들이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마저 안되고 있다.

그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8조 2항에는 유흥 접객부를 “손님과 함께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여성전용술집에 고용되어 여자손님의 시중을 드는 남자는 접객부의 개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때문에 대중음식점 형태로 변태향락업소를 하는 업소가 여자 접대부를 고용하면 업태위반이 되나 남자접대부를 고용하면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동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4) 터키탕신고제 전환에서 나타난 문제점

'95년도 말 행정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그간 시,도에서 허가하던 목욕장업 설치영업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공공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8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탕의 신고제 전환을 둘러싼 퇴폐, 음란행위의 성행 등이 우려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113개에 이르는 터키탕은 그간 “입욕보조자”라는 이름하에 무자격자의 안마행위와 퇴폐, 윤락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져 대부분의 시,도가 신규 허가를 금지해 왔다. 이번의 완화조치로 터키탕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6년도 7월 28일자 한겨레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고제 전환방침 이후 부산지역에서

모텔급 호텔들이 시설개조 등을 통해 무더기로 터키탕 설치신고를 낼 움직임을 보이는 등 터키탕은 96년안에 2백개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처벌규정 강화와 입욕보조자 제한을 통해 터키탕 난립을 막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기존 단속지도의 일회성과 일부 단속공무원 등과 유흥 업소간의 밀착된 먹이사슬관계로 미루어 보건대 관련 행정부처의 의지가 어느정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신종형태의 매매춘 행위가 사회 수면 위로 떠오른 이 시점에 보건복지부의 터키탕 신고제 전환방침은 매매춘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시각을 결여한 대표작으로 뽑힐만하다.

2.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의 문제점

윤락행위등에 대한 처벌 법령인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지난 61년 제정된 이후 30여 년만인 94년도에 개정되어 96년 1월부터 그 시행에 들어갔다.

매춘 행위에 대해 현행 법령은 금지주의를 취하고있다. 금지주의는 매춘을 범죄사건으로 금지하며 포주등 매춘행위 등을 조장·착취하는 자는 물론, 매춘 행위자도 처벌하는 입법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태국, 필리핀, 미 합중국의 몇개주 등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본 법령과 관련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겠다.

① 법의 명칭이 이중적인 성윤리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러한 명칭 존속은 법의 목적이나 금지행위, 선도보호자등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② 제7조(보호지도) 사항에서 보호지도 대상은 여전히 요보호 여자에게 한정시킴으로써 구매자는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③ 미성년자에 대해 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④ 매춘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혹은 요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 시스템이 다양하게 되어있지 못하고 더욱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⑤ 매매춘 알선 행위의 중간에 일부 비리 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무원의 책무조항으로 직권남용으로 인한 인권손상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집중 단속에 따른 사전 정보누설 등이나 포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IV. 매매춘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행정체계에 대한 평가

1. 행정체계

매춘여성과 관련된 행정체계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통부, 노동부, 경찰청, 내무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있다.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는 매춘여성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는 노동부에서, 윤락시설을 중심으로 통제업무는 교통부 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춘여성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내무부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녀복지과에서 이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결국 매춘여성 관련 행정체계는 일관성 있게 조직되어 있다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산만하게 개입되어 있고 한편에서는 처벌의 기능을, 다른 한편에서는 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관련 정부 부처간에 긴밀한 행정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일 예로 '96년도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법령이 시행된 이후 매매춘 행위로 구속 내지 처벌받은 건수에 대한 정부부처 문의 결과 평풍식으로 서로 넘기다가 결국은 자료 추적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말았다.

2. 보건복지부의 요보호여성사업 현황과 평가

'93년도 복지부의 부녀 복지 사업지침에 의하면 윤락행위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하여 예방사업, 국민보건 저해 방지, 선도사업 등 세차원에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중 첫번째 정책방향인 예방사업은 윤락유입경로의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목표달성을 위해 ① 가정, 직장, 사회에서의 윤리의식 고양을 통해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② 윤락유인자에 대한 단속강화로써 무허가 직업소개소, 포주, 인신매매매자 단속, 위협에 처한 부녀자 및 무단 가출자 신고 체계 확립 등 윤락발생 경로를 차단한다. ③ 상담사업의 활성화로써 취약 지역에 부녀복지

상담원을 집중배치함으로써 가출자의 윤락화를 미연에 방지한다.

세번째 정책방향으로는 윤락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사업인 바, 기지촌 집결 지역의 여성,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콜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 자치회의 조직 및 운영 유도 등 중점 선도지역의 선도행정 강화와 부녀 직업보도시설운영 등이 그 핵심프로그램이다.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시행한 사업현황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춘 유인자에 대한 단속 강화사업

복지부가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으로써 매춘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매춘위험 집단에 속해 있는 여성들의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구직 여성을 상습적으로 유흥접객 업소에 알선하고 있는 무허가 직업소개소, 업주등을 단속하고자 하나 조사권조차 없음으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나. 상담사업

보건복지부가 매춘여성 대상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들고 있는 것이 이 상담사업이다.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 7조1항에는 요보호여자를 선도보호하기 위한 보호지도소의 설치와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선도보호업무를 “보호지도소”에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윤락여성을 위한 보호지도소의 역할을 기존의 전국 부녀상담소에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녀상담소는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매춘여성등 요보호 여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선도를 위한 상담을 재개하기 위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8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별히 주요 역, 매춘행위 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구 94개소의 간이 부녀상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1995년 현재 부녀상담원은 386명이며 1개상담소당 평균 3명의 부녀상담원이 배치되어 있다. 94년도 기준으로 376명의 부녀상담원의 총 상담 건수는 299,839명이고 이중 취업알선 22,142명, 시설입소 2,860명, 보호알선(생계보조) 24,496명, 선도귀가 11,579명, 교육 및 조연 186,094명, 치료의뢰 5,681명 기타 46,987명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비스 실적에서 볼 때 교육 및 조연, 기타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춘 유입 원인(경제적 빈곤, 가정불화, 성폭력피해, 상습적인 가출등)을 고려한다면 일회적인 교육과 조연에 그치는 부녀상담 서비스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직업보도시설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명시된 직업보도시설 규정에 의하면 요보호 여성의 자립갱생 정신과 능력의 함양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94년 현재 전국 22개소의 직업보도시설이 있는데 이중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도시설은 전국 총3개에 불과하다.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정신교육과 더불어 양재, 편물, 이·미용기술, 타자기술, 요리, 자동차, 관광기술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업보도시설에 대한 매춘여성들의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93년도 여성개발원 실태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첫째, 직업보도시설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했을 때의 소득이 매춘생활시의 소득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데다, 대체적으로 매춘여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나쁜인식을 감수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선택한 집단이기에 이같은 낮은 소득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지속적인 복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의 전통적인 저임금 직종인 기술교육과정으로는 매춘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교육의 미비사항으로 지적된다 할 것이다.

둘째, 직업보도시설에서 행해지는 정신교육의 부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정신교육이 개인의 태도나 의식변화를 가져오게 하려면 전문인력 투입과 실제적인 치료 도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종교나 교양 교육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자발적인 윤락행위를 선택한 여성들을 선도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직업보도시설의 기술교육과 정신교육의 허술함은 직업보도시설이 매춘 여성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적 성격보다는 단속과 통제 성격의 시설보호로 일관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1. 매매춘 환경예방과 알선체계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응책

1) 성문화의 개혁

매매춘이 남녀 모두가 연관된 사회구조(노동시장의 성차별, 역진적인 조세정책, 가부장적 권위구조)와 왜곡된 성문화가 빚어낸 산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심어주도록 하기 위한 범국민적 건강한 성문화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향락업소 번창의 원인이 되는 분배구조의 왜곡시정, 불로소득 척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락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강화, 역진적 조세정책 개혁, 건강한 소득분배구조의 확립

3) 행정통제의 강화

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주로 매춘여성에게만 이중, 삼중의 착취와 기타 많은 질곡을 가하는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성을 사는 자인 매(買)춘 남성에게도 그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매매춘 알선체계를 근본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윤락여성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보다 중충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나. 향락·퇴폐지역의 특정구역화와 향락·퇴폐적 상업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화
퇴폐, 향락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퇴폐향락업소를 격리하여 이에 대한 행정통제를 강화하고 비특정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의 퇴폐, 향락상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들 지역의 유흥업소 건립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다. 무허가 직업보도시설, 결혼상담소 난립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처벌 강화
정기적인 단속, 기동감시반을 편성하여 매매춘 알선고리 체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고 특히 매매춘 알선혐의로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은 사람의 경우 ID 카드에 “요보호대상자”로 명시하여 정기적 관리감독 체계하에 놓이게 하는 등의 방안도 인권남용이 억제되는 수준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라.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등에서 향락, 퇴폐행위 업소에 대하여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벌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확대하고, 2차위반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의 강경조치 등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점에서 터키탕의 신고제 전환은 철회되어야 한다.

마. 퇴폐, 향락업소에 대하여는 영업권의 양도시 양도권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이 승계되도록 한다. 또한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작성과 집중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특히 단속된 지역을 벗어나 타인 명의로 영업을 재개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제되는 업소의 업주에 대한 주변 신상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라. 당해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수과정을 도입하도록 한다.

4)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개혁과 여성취업기회 확대 및 유망직종훈련 등 여성고용 및 직업훈련할당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유휴노동력이 정규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원등에서의 입소조건을 보다 확대하고 여성전용직업훈련원을 확대,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2. 매춘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화

기본적으로 조홍식교수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덧붙여 제안하고자 한다.

가. 상담서비스가 전문화되어야 한다.

매매춘 체계에 우선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집단에 대해 개별상담, 집단 가족상담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상담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현재 부녀상담소에 배치된 상담요원들의 자격요건은 공무원등 행정관련 신분으로서 이들 위험집단에 대해 매매춘 환경을 차단시켜내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상담가로서의 자질이 역부족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부녀상담소에 배치되는 현재의 요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아울러 전문상담요원들을 육성해내는 훈련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장지원서비스 등이 강화되고 매춘여성들에 대한 교양교육 등이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나. 매춘여성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 직업보도시설에서의 기술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전자 정보시대에 필요로 하는 기술등 매춘행위에서 버는 소득에 준하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한 기술교육 과정이 보다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